



김건상 박사

## Atropine/아트로핀 <상>

아트로핀은 유럽이나 서아시아에 자생하는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이나 벨라도나(Atropa belladonna)등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의 잎이나 열매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이다.중세 유럽에서는 벨라도나 잎사귀의 액즙을 화살촉에 묻혀 사냥할 때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의약품으로 분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몰핀 등의 중독에 길항제로 사용하며 안과에서는 눈동자를 크게 하는 산동약(散瞳藥)으로서 검사나 수술 전에 투여하고 있다.

벨라도나의 학명인 Atropa는 그리스의 운명의 여신 세 자매의 큰 언니의 이름인 Atropa에서 유래하였고 atropine이라는 약의 이름도 같은 유래를 갖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사람의 일생의 길이 즉 수명은 운명의 여신 세 자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세 자매의 막내인 Clotho는 물레질 하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생명의 실을 물레질 하여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로 옷감을 cloth라하고 옷을 clothes, 옷을 입는다는 동사는 clothe라 하는 것은 모두 Clotho에서 유래된 것이다.

Clotho가 뽑아낸 실의 길이는 둘째 언니인

Lachesis가 결정하고 둘째가 정한 길이에 맞추어 자르는 것은 말연니 Atropos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Atropine 즉 Atropos의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처음에는 흥분제로서 나중에는 마비제로서 약효를 보이는데 정신방양(精神發揚), 환각(幻覺), 광조(狂燥)의 증세를 보이다가 기면(耆眠), 마비(麻痺)를 일으키는 등 독으로서 작용한다.

서양 사람들은 3자를 좋아하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좋은 예가 된다. 여자를 그릴 때도 옷을 입었거나 벗었거나 3명을 그리는 것이 보통인데 세 여신을 그릴 때는 비너스, 헤라, 아테네 여신을 그리기도 하고, 또 Three Charites 혹은 Three Graces라 하여 Euphrosyne, Thalia, Aglacia를 그리기도 한다.

후자의 세 여인은 폼페이 벽화나 르네상스의 화가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세 여자에 한 여인을 보태서 사녀도(四女圖)를 많이 그리는데 이는 四女가 여자를 멀리한다는 捨女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여색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흔히 택하는 주제가 되기 때문이라 한다. <계속>